

# 선교부 광고

- 05.07.2023

## 1. 단기선교 소식

▷필리핀 단기선교: 필리핀 온라 인신학교 개교 및 그레이스 인카운터 3기 주말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신학교는 7명의 입학생과 3명의 청강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 후 안영식 목사님의 룻기 강의로 모든 학생들이 도전을 받았고 인카운터는 39명의 참가자들이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주말수양회를 5시간 앞두고 급하게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도리어 주님의 은혜로 더 좋은 장소에서 성령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 필리핀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함

께 기도해주세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브라질 단기선교: 브라질 포츠키스 언어권 한인 2세를 위한 TD (이멜송 #1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40명, 브라질에서 현지인 20명이 팀원으로 참여하여 포어권 한인 2세 52명의 캔디데이트를 섬겼습니다.

행사 후 한인교회 목사님, 장로님들과 별도의 모임도 가졌고, 계속하여 브라질 현지인 팀원들이 포츠키스 언어권 한인 2세를 섬기는 인카운터를 시작하여 한인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주고, 한인 2세들의 회복을 기도하며,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포어권 나라들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콜롬비아 AFA#3: 6/17-6/25, S/L:한기홍 담임목사, 현지선교사:김도현 선교사, 코디네이트:김민성 장로, 렉터:이영국 안수집사(310.433.8260), 첫

번째 팀모임:5/4(목),VC 205B

▷과테말라 의료선교: 6/3-10, (항공료+회비) 의료계지망 학생, 비의료인 참여가능. 김영수장로 (714.417.2001)

▷프레즈노 단기선교: 7/2(주)-7/5(수) 개척선교와 VBS 지역, S/L: 변재령 목사, 첫 팀멤버 미팅 5/27(토) 5PM VC119 선착순 100명. 문의 김성준 전도사 (714.943.8298)

▷베네수엘라 AFA#9: 7/15-7/24 (AFA 7/17월-20목),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이충렬 안수집사(562.665.0607), 문의:김희철 안수집사 (949.680.7787), 팀멤버모임: 1ST\_5/13(토) 6PM VC 108호, (\*한국 여권 소지자만 가능)

▷태국 개척선교 & 인카운터 및 태국/라오스/한국 VBS: 개척선교/인카운터 S/L: 변재령목사, 일정: 7/21-7/30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714.382.4820) / VBS 일정: 7/21-8/3 문의: 제키유전도사 (909.967.4626)

▷이스라엘 TD 22기 & 성지답사: 오리엔테이션 5/5(금) 6PM, VC 웨딩홀 (항공권 구매, 전체 일정 안내). 일정: 8/29-9/7, 항공료+\$700 TM FEE (3일간 성지답사 비용은 별도), RECTOR: 박유진 장로 714.334.4858.

## 3. 선교부 디보션 안내

선교부 디보션이 매월 2째, 4째 주 오전 9시 비전센터 223호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직접 만나며 선교지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교부 디보션에는 은혜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4.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 5.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2023년 5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9명 (자체 파송 75%)

# GRACE 선교소식



##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 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기홍 목사님 5-6월 선교일정

▷콜롬비아 AFA 3기 (6/20-6/23)

6월에 열리는 콜롬비아 AFA 3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아르헨티나

- 스텔라 김 선교사

모습이 마치 한국의 서울보다 더 붐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안영식 목사님을 모시고 열린 목회자 AFA를 통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무려 1500KM가 넘는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참석한 목사님들, 차비가 부족해 오는 길에도 치즈를 팔아가며 기적적으로 차비를 마련하여 참석한 현지 팀멤버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캔디데이트 79명과 팀멤버 8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모두가 진정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토록 멀고도 힘든 발걸음이었지만 AFA기간 동안 모든 팀멤버가 온 힘을 다해 섬겼고 다음에도 기꺼이 먼길마다 않고 달려오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길.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가운데 저는 선교센터가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남쪽 지방에서 10년, 수도에서 7년 살았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고, 이제 10년 넘게 살던 캘리포니아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라 적응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도시답게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에 가득하며 길거리도 북적이는

이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에 무엇보다 그간 목회로 지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AFA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회복시켰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진정 이 땅의 사랑의 불꽃으로 살겠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SOLA DEO GLORIA.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쓸개 쪽에 염증이 생겨 입 속으로 시술했는데, 시술 부위가 아파, 마약성 진통제와 항생제로 치료중입니다. 암치료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원 선교사**  
그간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차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혈압과 뇌경색 후유증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정기적인 CT, MRI 검사 결과, 천골(꼬리뼈)에 전이된 암은 줄어들고, 암 활동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어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할길 바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단지 신세포암 1기로 결과가 나와서 잔여 암세포 박멸을 위한 표적치료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위철 선교사**  
왼쪽 어깨와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1년 넘도록 지속되어 치료중에 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오호숙 선교사**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간수치가 정상수치의 7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가지고 선교지로 돌아와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정광수 정확미 선교사**  
발, 다리의 통증과 손가락 마비가 회복되도록, 혈당 및 혈압 수치, 만성 정맥부전의 회복을 위해, 아내 정확미 선교사의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치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탄자니아

- 송규영 오효숙 선교사

아이들에게도 음식과 회당에 가도록 강요하는 등 대대적으로 이슬람을 나라 전체에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노아학교에 금년 신입생 22명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보안 상황 속에서 자칫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대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이웃 친구들과 나누고 인증샷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끼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부활절이 아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나가서 선포하는, 행동하고 전하는 믿음일

작년에 16명이 등록한 성경대학 8기에서 11 명이 올해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였고 9기에 13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졸업한 자나 새롭게 등록한 자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특히 만기가 가까워진 저희 비자 문제와 아내 오효숙 선교사의 자가면역성 간염의 완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 있어서 더 없이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이곳이지만 열린 좁은 길을 걸으며 소망의 열매를 봅니다. 계속해서 디스쿨과 유스스쿨에 신입생들과 이들의 주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신학교와 저희 부부 그리고 현지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딸 예림이도 함께 침례를 받았는데 열약한 선교지에서 이방인으로, 또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며 이제는 자신의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귀한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학교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하시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오해

<1분단상 116-5월호>

- 김대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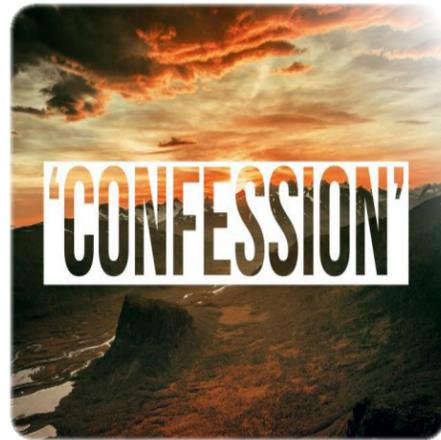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될 때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롬10:9b)는 것이다. 이 때 "마음으로"로 표현된 "카르디아(καρδία)"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곳이며 지성, 의의 근본적 원천으로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 중심부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곧 우리의 마음은 내면 전체의 인간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입술로 건성하는 고백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은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으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다(요 17:22,23).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선포인 것이다. 진솔하게 입으로 구주를 시인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빈 공간을 이방에서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5년 후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의 로마귀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회내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심화되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었다.

이에 사도바울은 서로 간의 화해를 촉구하면서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방인 선교를 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심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일 지라도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로마서가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롬10:9a)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사도바울의 강조점은 주 예수로 인하여 옛 사람인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만을 받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맞바꾸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떤 환란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공개적인 신앙의 선포인 것이다. 구원과 연결된 믿음의 이 선포는 결코 입으로만 시인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우리에게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의미는 이미 주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내가 좌정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신 연합된 상태를 입술로 자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를 위해 번치 않고 평생을 사는 삶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바닥 끝에 이르는 절망에 서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살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능력을 소유했다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환란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있다 해도 상관없이

라틴계의 선교지에서 의외로 많은 이로부터 받는 충격은 "나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으므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고백이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이해한 결과를 주장한 것이기에 틀린 말이 된다. 그런데 요즘 내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있어 난감한 적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 말씀을 잘못 전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이해하여야만 그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인용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영접기도의 형식이나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 형식주의적인 차원과 달리 복음의 본질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AD49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그 이유는 포로로 지냈던 유대교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분쟁과 폭동으로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 중국

- 조OO 윤OO 선교사

부활주일 현지 성도들과 함께 달걀을 꾸미고 장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조를 나눠 모임 장소 인근의 상점 점원들을 찾아가 달걀을 전달하고 부활

## 베네주엘라

-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지난 부활주간을 맞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중 12명이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